

우리 국민은 「소나무」, 「목련」, 「설악산」을 가장 좋아한다

산림청, 「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」 결과 발표

• 산림청은 제56회 식목일 맞이하여 21세기 여건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산림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「산림에 관한 국민의식」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.

• 이 조사는 한국궐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2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,814명(일반국민 1,514명, 여론선도층 300명)을 직접 방문,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.

• 산림청은 지난 '91년, '97년에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 항목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① 산림에 대한 주요 지표

-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(58.7%)로 '91년, '97년에 이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우리나라 대표 수종(樹種)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은행나무(6.8%)가 그 뒤를 이었다.
- 좋아하는 꽃나무는 목련(22.0%), 진달래

(16.1%), 개나리(13.4%) 순이고, 좋아하는 산은 설악산(44%), 지리산(19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• 작년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15.2%('97년 10.9%), 국민 1인 평균 2.6그루를 심었으며, 식수자 10명중 3명(30.8%)은 식목일에 기념식수를 했다고 응답해 식목일의 식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•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해 숲 가꾸기/산림내 쓰레기 치우기 등 자원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71.5% 높게 나타났다.

② 산림에 대한 인식과 평가

• 국민 대부분(72.8%)이 산과 나무에 관심이 있고, 산림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제공, 산사태·홍수 등 재해방지, 국민정서 함양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(95% 이상) 있었다.

• 또한 국민의 절대다수(97.8%)는 산과 나무가 국민의 복지·여가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.

• 우리산림의 문제점으로 나무를 '심기만 하고 가꾸지 않는 것'(37.3%)과 '투자 부족'(36.0%)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

- 방안으로 산림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를 꼽았다.(여론 선도층)
- ③ 산림청에 대한 인식
 - 산림청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('97년 81.2% → '01년 96.2%),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산림청이 산림을 '보호·보존' 하는 업무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21세기에는 산림청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5.3%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④ 산림정책에 대한 평가
 - 산림정책을 '잘 해왔다'고 평가하는 국민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'97년에 대하여는 과거보다 '좋아졌다'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.
(일반국민 54.4%, 여론선도층 83.7%)
- ⑤ 산지보존 및 개발
 - 우리 국민의 대부분(81.8%)은 산지의 보존과 개발의 상반된 의견중 보존에 더 찬성하고 이러한 보존 지향적 견해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('91년 63.2% → '97년 : 76.3%)
- ⑥ 산불관련 견해
 - 우리 국민의 대부분(82.2%)은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가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동의하였다.
 - 또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등산로 폐쇄·입산금지 조치를 '더 강화해야 한다'(61.4%)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국민들은 산불예방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.
(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완화해야 한다 : 10.5%)
- ⑦ 21세기 산림정책 방향
 - 21세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산림정책 과제로 경제림 조성확대(54.2%)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산림휴양시설 확충(29.4%)과 산림기반 조성(28.0%)을 들었다.
 - 도시지역 산림에 대하여는 일반 산림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의견이 소수(10.9%)에 불과하고, 등산로·산책로 정비(48.4%), 생태교육·자연학습 등 청소년 교육장(25.9%)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게 제시되었다.
- ⑧ 산림휴양시설 이용실태 등
 - 국민들이 가장 여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장소는 숲/계곡(56.1%)으로서 바다/해변(35.7%) 등 다른 장소에 비해 선호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.
 - 자연휴양림을 이용해 본 국민이 절반에 가까우며, 연령이 높고 도시 지역 거주자 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휴양림 이용자 10명중 9명이 재이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